

# Public Arts로서의 Super Graphic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per Graphic as Public Arts

이향숙

성신여대, 김포대학 겸임교수

Hyang- Sook lee

Dept.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 Gimpo College

• Keywords: Super Graphic, Public Arts, City Identity

### 1. 서론

지방자치체의 정착으로 각 지역의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재정의하고 개성화하는 한가지 접근 방안으로서 지역 특성화를 위한 디자인의 도입과 그에 따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디자인이 기존의 상황을 전혀 새롭게 창의적인 고부가가치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의 확산은 지역특성화에서 디자인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 군포시는 지역 문화공간의 보유 및 시설 확충이 타 시에 비하면 월등한 편이다. 지역 문화예술인과 관계기관 모두 문화도시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문화란 오늘날 일반 대중의 생활방식 즉 삶이 되었다. 삶의 가치는 '대중문화상품'에 의해 대변되고, 이런 상품은 문화가치의 기준으로 선택되어지며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메카니즘을 알아내고 발전시키는 것이 디자인이다. 따라서 자연히 <문화>가 디자인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문화와 디자인의 관계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화와 경제, 그리고 사회가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군포시의 경우 시각 환경 측면에서 시민들 대다수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시각이미지의 형성의 인식 측면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금정역사(驛舍) 벽면의 슈퍼그래픽(Super Graphic)의 발전적 응용 방향의 제시를 그 연구 목적으로 한다.

### 2. 도시 Identity를 위한 지역 특성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물질적 환경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인간에 의해 디자인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적 환경은 시각환경의 측면에서 이야기 될 수 있다. 오늘날 인간은 자연환경의 오염뿐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환경 속에서 상점의 간판이나 거리의 표지판, 빌보드나 포스터, 도시 시스템을 알리는 사인 시스템, 슈퍼그래픽 등등의 시각 공해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시각 공해의 고통 속에 살아간다. 시각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선이 닿는 곳 어디에나 그래픽 가공물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지의 홍수 속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 디자인은 인간 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요소로서 인위적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린치는 <도시의 이미지>에서 도시환경의 이미지를 세 개의 요소로 나누고 있다. 즉 주제성(identity)과 구조(structure) 및 의미(meaning)이다. 도시의 삶은 인간의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일상의 다양한 충무에 적응하기 위해 항상 긴장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특성들은 도시 자체의 형태와와 성격을 변화시킨다. 도시의 이미지는 구체적인 설계과정에서 나타나는 물질적 구성에 의해 형성된다.

한번 만들어진 도시 이미지는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그 노력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인지할 수도 없다. 1993년 제4회 근대건축국제회의(CIAM)에서 도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거주한다, 일한다, 쉼다, 이동한다"에 있고, 그러한 기능을 만족시킬 도시는 공간적으로 태양, 녹음, 공간을 가져야 한다"로 명시되었다.

- 도시 Identity를 위한 지역의 특성을 규정하는 요소에는 도시 이미지 형성작업, 경관 디자인, 문화산업, 지역개발등의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 도시 이미지 형성계획(City Identity Program)은 지방공공단체의 이미지 향상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변화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 등 새로운 이념의 필요성 하에 지방자치체에서 도입의 배경이 되고 있다.
- 경관디자인은 지역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의 가로 및 그 구성물들에 대한 디자인으로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 경관이 절대적인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가로환경의 구성요소는 건축물, 환경조형물, 스트리트파티쳐, 사인, 보도디자인, 슈퍼그래픽(그림1)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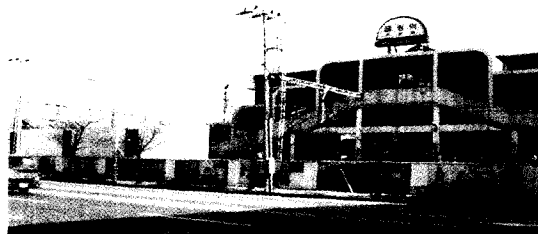


그림 1) 군포시 역사 벽면의 super graphic

- 또한 지역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의 발굴과 지역개발은 그 중요성과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분야이다. 디자인이 살아야 경쟁력이 산다 라는 말은 이제 경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 기준이 되었다.

### 3. 공공미술(Public Art)로서의 Super Graphic

모더니즘 이후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개념 중의 하나는 미술의 공공성, 공공미술로서 공공미술(Public Art)은 '공공과 문화의 형식 개념인 '미술'이 만나 하나가 된 사회적 개념이다. 공공미술은 그 소통의 아름다움을 더불어 즐기고 나누는데 존재 이유를 설정하고 있다. 공공미술은 그 성과 위에 공공성, 소통성 참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문화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이 자유롭게 접근하고(Public Access) 즐기며(Public Use) 소유한다는(Public

Ownership) 점에서 문화의 민주화를 더욱 뚜렷하게 실천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비평을 일깨우고 삶으로의 참여, 개입을 이끌어내는 사회화의 매체가 된다. 새 장르의 공공미술은 과정을 중시하며, 그 형태가 지역적인 이야기에 충실하며, 정치적 주장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1% 예술정책'에 의존한 관례적인 공공미술은 물리적 공간과 미적 오브제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정당화해 왔다.

공공미술(Public Art)은 야외 조각에서부터 지역 공동체의 벽화작업, 대지미술(land art), 장소위주미술(site-specific art), 가로 포장(paving)과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예술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작품 설치 장소는 대부분 도시이고, 그 형식은 조각, 벽화, 디자인 등 다양한 범주를 포괄한다. 대도시의 대중교통시설은 거의 공공미술의 부전공 분야가 되어 공공미술의 양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미술가들은 역사(驛舍)의 시각 이미지 작업과 기차, 지하철, 버스 등 운송시설 디자인에 참여해 왔다.

변화해 가는 사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각각각색의 문화 형태를 접촉하게 된다. 근래 들어 도시벽면에 자치단체나 건물주들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거나 자기 홍보의 수단으로 도시 벽화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과거 시멘트 위주의 회색도시에서 색깔있는 도시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슈퍼그래픽(Super Graphic, 그림 2, 3)은 환경을 이용한 그래픽으로 건축물의 외벽과 동별 표시물 등 컬러시스템에 의한 이미지 통일을 위해 도입되었다. 슈퍼그래픽은 1920~30년대 멕시코나 미국의 벽화운동에서 유래한다. 슈퍼그래픽은 공공미술로서 임울한 분위기를 한걸 부드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지역과 문화에 맞는 다양한 재료의 선택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표현 내용의 선정, 표현방법, 색채 계획이 서구에서처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색채는 색채로서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그 자체가 색채 하나 하나의 감정보다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인 반응이 더욱 중요하다. 한 화면상의 색채나 조형 요소들이 지나친 파격보다는 보편적이고 단순한 것이 시각에 호소하는 힘이 더욱 강하다. 벽화의 내용은 공공미를 우선시 해서 그 작품이 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의 경관 색채 기준을 감안하여 잘 그려진 이미지는 문화적 풍요로움을 제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도시벽면을 위한 표현방법으로서 체계적인 경관조사와 전문성 있는 표현과 대상물의 면적과 그림의 크기대비, 색채 대비, 선, 그리고 표현의 컨셉(concept)등을 감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퍼블릭 아트(Public Arts)로서 컬러코디네이션, 균형적인 구성요소, 통일감 변화감 등이 경관색채의 상관성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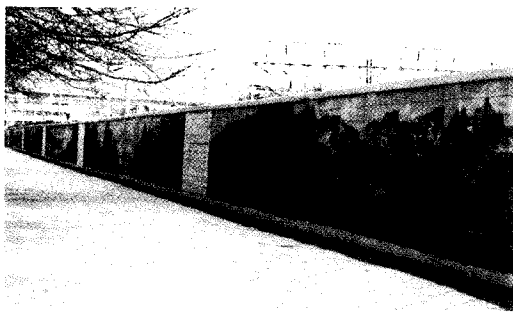


그림 2) 군포시 역사 벽면의 super graphic의 일부



그림 3) 군포시 역사 벽면의 super graphic의 일부

수퍼그래픽(Super Graphic)은 단순히 벽면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환경 미학적 기능을 갖는다. 또한 이동자들에게 거리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색채, 그래픽 심볼 등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여 방향 제시를 하는 기능을 갖게된다. 그리고 대중과 의사 소통을 이루는 시각 언어로서 그 표현 중의 하나로 공공성의 기능을 갖는다. 그 지역마다 특징에 맞게 제작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소유의식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다. 공공미술의 일부로서 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더욱 매력적이게 만들고 시설의 차별성을 강조하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실려준다. 제작 의도에 따라 재료, 표현의 내용, 표현방법, 색채를 조화시켜 활기찬 분위기로 이끌어 주기도 하며 또한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 4. 결론

그 지역의 정체성 표현을 위해 제시되어야 할 문제는 개념(Concept)의 제거나 상징적 요소들의 시각적인 표현에 있다. 4호선과 국철이 만나는 군포시 금정역은 지역 시민들이 타 도시로 출근하기 위해 전철을 이용하는 주요역이다. 철로를 따라 이어지는 벽면은 각종(?)의 이미지들로 이루어졌다. 슈퍼그래픽은 장식물이 아닌 공공미술의 기능 및 공공미술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문화공간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그 지역 특성에 알맞은 아름다운 가로경관으로 도시환경 전체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의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도시는 새로운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특성화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군포시민의 개성있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변환경, 역사적 배경, 주민의 의식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념을 명확히 하고, 스스로 변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그 이념과 변혁의 성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지역조성에의 주민의 자주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역사(驛舍)의 시각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전문적인 매니저에 의해 추진되어 공공장소에 적합한 '질'을 확보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문화라고 지칭하는 현상에는 경험적인 지각의 재구성을 통한 수용과 창조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개입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미술가들이 지역적 환경을 중시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교감 속에 공공미술에 대한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해석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환경 속에서 사회적 교류 공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